

다나바타(칠석) 자원봉사 20주년을 맞이하여

- 1 지자체명 일본 (JAPAN) 도야마현 (Toyama pref.)
- 2 발표자 이미즈 시립 신미나토 서부 중학교 학생회
- 3 활동명 다나바타 자원봉사활동
- 4 활동 기간 1985년~현재 (매년 1회 실시)
- 5 활동 장소 쇼가와 하구 부근 하천 부지
- 6 활동 참가인원 약 300명 (2005년도)
- 7 활동을 시작한 경위

지금부터 약 20년 전, 쇼가와 하구 부근에 있는 하천 부지에는 상류나 바다로부터 흘러들어오거나 버려진 여러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 1985년 봄에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본교 여학생 여럿명과 그 가족들이 휴일을 이용하여 하천부지의 쓰레기 줍기를 시작한 그 활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져 전 학생들이 참가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옛부터 전해지는 「다나바타 전설」이 있다. 그 전설을 기념하여 이 활동을 매년 7월 7일(칠석날)에 실시하기로 정하고 그 활동명을 「다나바타 자원봉사」라 부르기로 했다.

2004년에 20주년을 맞이한 이 활동은 해마다 참가자가 증가하여 현재는 지역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경로클럽, 자원봉사 서포터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가 되었다.

8 발표 요지

(1) 이 활동을 시작한 경위

20년전의 쇼가와 하천부지의 모습은 아주 더러웠다. 불법투기로 인해 유리병이나 폐재(廢材), 페타이어, 플라스틱 용기 등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 그것을 본 어떤 여학생 어머니께서 친구를 불러 휴일아침에 함께 하천부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이것이 후에 신미나토서부중학교의 학생회 행사인 「다나바타 자원봉사」의 시작이다.

우리 학생회는 재작년에 이 활동을 시작한 오리하시라는 분과의 인터뷰를 통해당시의 모습과 경위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

하여간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라는 말조차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활동이 단지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자원봉사의 의의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사진:당시 신문기사)

(2) 「다나바타 전설」에 대해서

다나바타 전설의 유래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이야기이다.

은하수가 반짝이는 견우(독수리별자리:알타이어)와 직녀(거문고별자리:베가)는 부부였다. 그들이 결혼하고도 놀고 먹으며 게으름을 피우자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이 1년에 한번 7월7일 칠석날 밤에 하늘로 올라가 만난다는 스토리이다.

이 이야기를 기념하여 활동이름을 「다나바타 자원봉사」라고 지어 매년 7월7일에 쇼가와 하천부지에서 쓰레기줍기를 실시하고 있다. 쇼가와가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와 같이 아름다운 강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3) 작년도 (발표할 당시는 금년도) 다나바타 자원봉사의 모습

본교의 부근에는 신미나토초등학교, 신미나토고등학교가 있고 쇼가와 강 건너에는 나카후시키(中伏木)초등학교가 있어, 이러한 청소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교류가 깊어짐과 동시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자로서 지역의 미화활동을 활성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근 학교의 협력을 받고 있다. 또 지역 자원봉사나 경로클럽분들에게도 얘기해 작년에도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

약 1시간의 청소활동이지만 대량의 폐기물을 주울 수가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플라스틱과 발포스틸렌(스티로폼) 용기, 빈 캔과 빈 병 등 이고 대형 폐기물로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부품도 자주 발견되었다. 쓰레기 조사에 의하면 육지에서 불법투기도 많지만 바다로부터 흘러들어온 표류물도 많아, 지역 활동만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현상에 허무함을 느낀 적도 있었다.

(4) 최근의 쇼가와 하천부지의 모습

최근의 쇼가와 하천부지는 예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름다운 환경을 되찾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가 내려 강물이 많아졌을때나 태풍이 지나간 후 등, 물가에는 많은 표착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하구 부근의 로쿠도우지절(六渡寺)해안에도 항상 쓰레기가 해변에 떠 다니는 현상이다.

물론 국내 쓰레기가 많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나 한글로 인쇄된 쓰레기도 자주 발견되, 불법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쓰레기 중에는 낚은 것도 많아 오래동안 바다에 표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바다에 표류되어 있는 쓰레기들도 지금부터 몇년동안에 걸쳐 이 하천부지에 표착한다는 것이다.

(5) 지금부터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다나바타 자원봉사에서 주울 수 있는 쓰레기는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와 같은 국외의 것도 적지 않다. 당연히 국내의 것은 그 이상이다. 이것은 동해에서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심각하고 그 반면에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 해안에도 일본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도 등꼴이 오싹해 진다.

우선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천이나 바다에 쓰레기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된다. 일단 바다에 한번 흘러들어간 쓰레기는 간단하게 수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다나바타 자원봉사가 20년 이상이나 계속되었던 것은 훌륭하다고 볼수있는 반면, 20년동안 계속해서 쓰레기를 모조리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점이 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인간이 하천이나 바다에 버린 쓰레기를 전부 치울때까지 이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쓰레기 없는 쇼가와를 우리의 손으로 되찾고 싶다.